

# 광주 예술의 거리, 마산 창동예술촌에서 배워라

### ‘거버넌스를 통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 포럼 다양한 콘텐츠·차 없는 거리 등 서비스정신 필요

30여 년 전만해도 창동은 마산의 ‘명동’으로 불렸다. 1970~80년대 수출자유지역 덕분에 전국 7대 도시로 부상하며 젊은이들과 문화예술인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창동의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 후반 수출자유지역이 쇠퇴한데다 2010년 7월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하면서 도시 공동화가 가속된 것이다. 창동과 인근 오동동 점포 1600여곳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2년 후, 창동은 문화와 낭만이 가득한 예술촌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평일 방문객이 줄잡아

3000여명에 이르고 주말에는 6000~9000명이 찾는다. 광주시와 문화관광부 주최로 지난 11일 예향화랑에서 열린 ‘거버넌스를 통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 포럼은 창동 예술촌의 성공을 통해 예술의 거리의 변신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광주대 산학협력단(단장 이명규)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김영우(광주시의회 의원), 박호재(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박진현(광주일보 편집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안철환(예술의 거리 변형회장), 조승기(대

인예술시장 미테갤러리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장철 창동 예술촌장은 “창동이 마산의 ‘인사동’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관(官)과 예술단체의 거버넌스(governance·協治)”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무엇보다 마산시가 지난해 3월부터 20억원을 들여 창동골목 빈 점포 50곳을 2년간 건물주에게 임차한 뒤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 준 게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마산시와 예술인, 운영주체가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창동예술촌을 꾸려오고 있는 점도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다. 조승기 관장은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려면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많이 들어서야 하는 데 높은 임대료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마산시가 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빈점포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광주시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관장은 장기적으로 대인예술시장과 계림동 구 시청 일대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예술의 거리의 차없는 거리 지정 등 예술의 거리 입주상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진현 부국장은 “일부 상인들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서울 인사가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없는 거리 지정과 상가 임대료 인하, 상설 콘텐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많은 차량들이 정차돼 있는 예술의 거리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유는 다양한 콘텐츠와 차없는 거리 등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서비스 정신’도 한몫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철환 변형회장은 “오

는 3월부터 평일 오후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오는 2015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에 맞춰 예술의 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사업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수만마리 군무, 가창오리 다시 볼수 있을까

### 수렵허가·어로행위·먹이감소로 해남서 종적 감춰

석양 속에 화려한 군무를 추던 그 많은 가창오리는 어디로 간 걸까. 국내 유일 철새 도래지 가운데 하나인 해남에 ‘겨울 진객’ 가창오리떼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가창오리는 해마다 이맘때면 수십만 마리가 해남을 찾아 금호호, 고천 앞호에서 겨울을 보내며 활출한 군무를 선보였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하루 20만 마리 이상 관측됐으나 이번 겨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청 환경과 직원들이 매일 철새 도래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가창오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가창오리 대신 기러기떼와 청둥오리 등이 월동하고 있고 이마저 개체

수가 줄었다. 가창오리떼가 사라진 것은 서식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해남과 영암지역이 수렵지구로 지정돼 총성이 울려 퍼지고 금호호 등에서 어로행위가 허용돼 철새의 쉼터가 불안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추수가 끝난 뒤 벗겨 사이로 떨어진 낱알이 줄어들어 먹이감 부족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사료용으로 쓰려고 하얀 바닐라 말아 농경지 곳곳에 놔둔 대형 원형 벼 단이 햇살에 반사돼 철새들의 비행에 위협을 주고 이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야생조류협회 고경남 회장은 13일 “불안한 서식 환경과 먹이 부족 등 10만 가창오리떼가 10만 단위의 대군 속에서 한 단위의 소그룹 형태로 나눠 이동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철새 도래지 여건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3~4년 전처럼 추수를 하지 않고 철새 먹이로 남겨 두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등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창오리떼의 활출한 군무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창오리는 길이 40cm로 아시아에 분포하며 개체 수는 총 80여만 마리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설립 본격화... 18일 총회 위원 5명 위촉 본격 활동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을 담당하게 될 박람회 재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설립위원으로 신광식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이호경 여수시 부시장 등 5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했다. 설립위원들은 최근 박람회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창립 총회 일정과 재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18일 대전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창립 총회를 열고 장관, 임원, 사업예산계획서 등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재단을 공식 설립해 박람회장 재개발과 부지 매각 등의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www.kwangju.co.kr

# 나로호 상단조립 완료... 25일 발사될 듯

### 이번주 최종결정... 교체연료 연소시험 정상 등 순조

나로호의 상단부 조립이 완료되는 등 이르면 오는 25일 나로호가 다시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로켓 상단부 교체연료 킷모터도 실험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발사 준비도 순조롭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번 주 열릴 나로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3차 발사 예정일이 최종 결정되며, 기상 등 돌발 상황만 없다면 이날 25일이 발사예정일

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나로우주센터 민경주 센터장도 “상단부의 모든 실험·점검이 문제없이 완료돼 최근 상단부 조립도 끝마쳤다”고 밝혔다. 아직 발사관리위원회의 정확한 회의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발사 예정일이 결정되고, 발사일도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러시아 연구진은 회의에서

나로호 수리 및 점검 상황과 현재 상태 등을 논의하고 발사 가능 시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측 연구원들은 최근 휴가를 마치고 입국했다. 현재 나로호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결함 부분 수리와 테스트를 모두 마쳐 발사일만 정해진다면, 상·하단(2·1단) 제조를 시작으로 본격 발사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나로호 발사는 신호 이상이 감지돼 중단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목포 ‘DJ노벨평화상 기념관’ 6월 개관

목포 삼학도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오는 6월 문을 연다. 기념관은 삼학도 1만5600㎡ 부지에 전체면적 4677㎡, 지상 2층, 높이 14.1m 규모로 건립된다. 목포시가 국비 등 200억원을 들여 짓고 있다. 다음달까지 건축공사가 끝나면 전시시설 등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한다.

1층 전시실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를 향해 걸은 길을 간략하게 조명하는, 출생에서 서거까지의 기록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영상실이 배치된다. 2층은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한국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사유, 시상식장 현장 분위기 영상연출, 아시아 민주화를 위해 걸은 일대기, 정

치 입문, 민주화 과정의 고난과 역경, 디지털 김대중 연보, 각종 유품 등이 전시된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다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자 기념관을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념관이 개관하면 목포관광의 랜드마크 역할과 청소년의 역사·문화 학습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www.kwangju.co.kr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 초빙공고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신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원장으로 초빙합니다.

**1. 초빙내용**

| 직위 | 인원 | 임기 | 보수      | 주요업무           |
|----|----|----|---------|----------------|
| 원장 | 1명 | 3년 | 협의 후 결정 |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 총괄 |

**2. 지원자격**

- 산학협력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산학융합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
- 조선해양산업용 견인할 비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분
- 관리적 경영으로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경력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3.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이력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A4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내외)
  - 산업기술 및 고등교육에 대한 견해 및 산학협력 추진 방안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발전 방안 제시
- 경력증명서, 학력(학사, 석사, 박사)증명서 및 관련자격증(해당자)
  - \* 양식은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음
  - \* 전라남도(공직서장, 고시공고)
  - \* 국립목포대학교(일반공직)
  - \* 한국산업단지공단(사업공직)
  - \* 전남테크노파크(IT통합소식, 사업공지)

**4. 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3. 1. 11(금) ~ 1. 24(목) 17:00까지
- 지원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우송)
- 접 수 처: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추천위원회
- 접 수 소: (우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도림리 61) 공과대학 5공학관 316호

**5. 심사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법인발전방안, 사업추진계획 등을 심사
- 2013. 1. 29(화) 14:00, 면접접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일용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추천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연락처: 061-450-6342, 061-450-6115
- 2013년 1월 11일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www.gwangam.co.kr

## (주)광암스틸 사원모집

**모집요강**

|      |   |
|------|---|
| 업종   | 선재(철선) 제조업  |
| 모집직종 | 영업사원 : ○명(35세 이상, 타입종 영업경험자 우대)<br>생산직사원 : ○○명(무경험자 가능)<br>공무(기계수리) : ○명(무경험자 우대) |
| 생산종목 | 보통철선, 소둔선, 결속선, 와이어메쉬   |
| 접수기간 | 2013. 1. 4(금) ~ 2013. 1. 31(목)  |
| 접수처  | (주)광암스틸 관리부   |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전형절차 | 면접전형  |

문의전화 | 061-393-6997

(주)광암스틸 Gwangam Steel Co., Ltd.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1062-8

KTCF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 아동요리 자격증반 & 펌백자격증반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2:00~PM4:00(12주)  
교육과목 | 생체리듬인, 푸드컬러, 꽃꽂이, 와인, 테이블매너, 푸드스타일링, 테이블 세팅

**푸드코디네이터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가, 레스토랑컨설턴트, TV쿠싱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2013년 1월 19일 개강!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요일 PM1:00~PM3:00(12주)  
교육과목 | 김치 이론, 당근기 실습, 김치 퓨전 요리, 김치 스타일링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아동요리론, 아동요리도구론, 아동요리도움 및 아동요리의 예제와 실제, 아동요리 시연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방학·아동요리지도사, 유치원·문화센터·평생교육원 아동요리지도사 등  
2013년 1월 19일 개강!

**펌백 · 이바지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 목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내용 | 오징어오일류, 꽃김오일류, 한과류, 정과류, 쌀장정, 쌀엿, 대추탕, 육포, 구절판, 찰밥부꾸미

**펌백 · 이바지사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가, 레스토랑컨설턴트, TV쿠싱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2013년 1월 22일 개강!

푸드코디네이터 명인1호 · 김치소믈리에 명인2호  
2012 대한민국 신지식인 교육부문 대상 수상 “이성의 원장”

조리사자격증반 한식·양식·일식·중식·북어 수시개강 (주간·야간)  
생활요리반 & 특수아동요리반 수시개강 (주간·야간)

Sthe1 요리학원 문의전화 062-385-0723  
금호파울스 건너편

##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양반
- 원서 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사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